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가 25일 노조의 하루 전면파업에 대응해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정문을 봉쇄하자 노조원 3000여 명이 회사로 진입하기 위해 회사 관리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금호타이어 끝내 정면 충돌

노조 파업에 사측 직장폐쇄 맞대응

워크아웃 중인 금호타이어가 노조의 전면 파업과 중국에서의 대규모 리콜 사태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처했다. <관련기사 2면>
금호타이어 노조는 25일 하루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그동안 수차례 교섭 요청에도 사측이 지난해 입단협 합의만 앞세우며 대화에 나서지 않았다"며 "교섭 촉구에 대한 조합원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경고성 파업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 파업에 맞서 회사 측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사측은 공고를 통해 "회사가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조의

불법 행위행위로 인한 손실을 감당할 수 없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해져 공장 가동을 중지하고 직장을 폐쇄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측은 직장폐쇄 사실을 노조에 통보하고 관리직 직원 300여명을 동원해 회사 정문을 봉쇄, 노조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광주·곡성공장 노조원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공장 운동장에서 파업 집회를 연 뒤 공장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마찰이 있었지만 우려했던 큰 충돌은 없었다. 노조는 오후 3시7분께 사측 제지

를 뚫고 공장에 들어갔다. 이들은 노조 사무실 앞에서 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파업 다음날인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성실교섭 촉구를 위한 기간으로 정해 파업을 유보하고 업무에 복귀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측의 직장폐쇄 해제 여부가 주목된다.
사측 관계자는 "노조가 전면파업을 벌임에 따라 채권단과의 협의를 거쳐 직장폐쇄를 단행하게 됐다"면서 "하지만 앞으로 노조가 파업 철회에 대한 확실한 의사를 표명하면 직장폐쇄를 해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측은 직장폐쇄 중에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진입한 노조원들에 대해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남 조정회의 결과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사건은 노동조합법에 의거한 노동쟁의로 조정대상이 아니다"며 "따라서 노사는 2010년 입단협에서 합의한 취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공직자 63% 재산 증가

강운태 시장 4억9천만원 늘어
박준영 지사 4억6천만원 증가
임성훈 시장 82억 최고 재력가

광주·전남지역 고위공직자 및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62.8%가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6명 이상이 재산 불리기에 성공한 것이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11년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결과 광주지역 전체 재산등록 대상 36명 가운데 21명(58.3%), 전남지역은 85명 가운데 55명(64.7%)의 재산이 늘었다. <표 2면>

2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강운태 광주시장이 선거비용과 예금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하반기 취임 직후 14억2140만7000만원에서 4억9707만6000원이 증가했으며, 박준영 도지사 역시 19억1340만원으로 1년 사이 4억6740만원의 재산을 늘렸다. 박 지사는 셋째딸의 급여와 연말 성과상여금 수당이 소득으로 잡히고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용인의 임야 1433㎡가 종전 2억3214만원에서 3억2959만원으로 1억원 가까이 뛴 것이 그 원인이 됐다.

광주지역 고위공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직자는 광주시의회 김영우 의원으로, 부모 재산을 신규 등록하면서 5억9970만

6000원이 늘었다. 반면 나종천 의원은 예금 4억2541만원 등이 줄면서 재산이 5억7100만5000원이나 줄었다. 송계근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조호관 광주시의원 등은 펀드 수익이나 주식평가액 증가에 따라 각각 2억2199만9000원, 1억7831만 4000원이 늘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장남 재산을 신고에서 제외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재산이 2억3313만3000원 감소했다. 기초단체장 중에는 김중식 광주시구청장의 재산이 1억8477만4000원 늘어난 27억7571만1000원으로 기초자치단체장 중 가장 많았다.

전남지역 재산신고 대상자 85명 중 재산이 불어난 경우는 모두 55

명이나 됐다. 장 교육감은 선거비용 보전금으로 금융기관 채무액의 상당 부분을 해결하면서 마이너스 상태(-1억7022만원)였던 재산이 4억 268만원으로 5억7291만원이나 늘었다.

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건물 매매와 생활비 지출 등으로 9400여 만원 감소했으나, 여전히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0여건의 건물과 9억원대 유가증권을 소유, 신고액은 23억7599만9000원이었다.

전남지역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모두 재산이 늘었고, 기초단체장은 20명 중 15명(75.0%), 도의원은 59명 중 34명(57.6%)이 증가했다.

명현관 도의원이 7억4096만원 늘어 증가액 1위를 차지했고, 김택 도의원이 10억9605만7000원의 재산이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전남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임성훈(82억1754만원) 나주시장이었으며, 임명규(54억5363만원) 도의원, 명현관(51억9652만

원) 도의원이 그 뒤를 이었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19명 중에서는 14명의 재산이 늘어난 반면 5명은 재산이 줄었다. 최인기 의원은 88억5050만원의 재산을 신고, 19명 중 1위를 기록했으며 장병완(76억8828만원), 김효석(70억9048만원) 의원이 뒤를 이었다. 최 의원은 배우자 주식가치 상승(17억여원)과 일부 주식 매도로 인한 예금 증가(9억여원) 등으로 24억8274만원을 늘렸다.

반면 김성근 의원은 5억3527만원으로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으며 김영록(7억7399만원), 강기정(7억7498만원) 의원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은 예금증가로 지난해 54억9659만8000원에서 4억940만2000원이, 김황식 국무총리 역시 저축액이 늘면서 11억2116만6000원에서 3164만2000원이 증가했다. /박지훈·윤혁석 기자 jkpark@

광주 R&D특구 출범

현판 제막식...지역경제 발전 새 전기

광주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광주연구개발(R&D)특구 현판 제막식과 함께 공식 출범했다. 광주시와 지식경제부는 25일 오전 11시 광주테크노파크 2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연구개발특구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강운태 광주시장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지역 국회의원, 전남대·조선대 총장, 언론인과 기업인,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선포와 현판 제막식 등이 진행됐다.

광주시는 광주연구개발특구를 ▲차세대 광기반 융복합 ▲친환경자동차 부품소재 ▲스마트케어 가전 ▲차세대 전자 등 4대 특화분야로 나눠 집

중 육성, '빛과 문화로 변형하는 세계적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국내·외 연구소 유치와 특구 간, 대학 간 상호협력사업을 통해 한·중·일 개방형 협력단지로 만들어 나가고, 광주테크비즈니스센터·연구생산집적시설·산학연융합캠퍼스를 조성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해 가기로 했다.

최중경 장관은 "광주연구개발특구는 호남권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광주·전남의 지역경제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광주특구 육성사업을 포함해 호남권 지역에 올해 2700억원을 지원하는데 등 호남권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



연구개발특구지연본부 광주기술사업화센터 현판식
25일 오전 광주테크노파크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광주연구개발특구 출범식에 이어 특구사무실 현판식에 참석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강운태 광주시장, 김재균·김영진 국회의원,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 등이 광주 특구의 성공적인 운영을 기원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운태 시장은 "광주특구가 동북아의 대표적인 개방형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호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새 엔진 스포티지R 타 보니 ▶5면 Books ▶8·9면 할리우드 진출 활발 ▶10면 광주앱개발센터 탐방 ▶12면 프로야구 출범 30년 ▶15면

광주일보 창사 59주년 기념

CAST 송창의, 윤도현, 리 사, 임병근, 허 규

광화문연가

뮤지컬

2011년 4월 22일(금)~24일(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주 최 | 광주일보 | KBC
| 주 관 | KBC미디어컴 · 영무엔터테인먼트

| 공연시간 | 22(금) 오후 8시 · 23(토) 오후 3시 · 7시 30분 · 24(일) 오후 3시
| 티켓가격 | VIP석 110,000원 · R석 99,000원 · S석 88,000원 · A석 66,000원 · B석 55,000원
| 예매처 | 인터파크 · 쇼티켓 | 공연문의 | 062-220-0541

www.musicalyounga.com